

2016년 11월 9일, 구좌읍 세화리 조흥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김순자(여, 1947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조흥순(여, 1924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제보자1] 그 호랑이. (웃음) 호랑이. 호랑이 이제 어멍. 이제 어멍이 떡 행 가다네 이젠 또 저 옛날 옛날에 그 저. 떡 행 머리 이영 가다네. 무신 호랑일 만난 거라.

“떡 하나만 저 떡 하나만 주민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”

허당 보난

“팔 한 짝 주민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”

허단. 어멍 몸뚱아리 다 쥐 벗어. 죽으난 이젠 풀 성제 잇는 집이 온 거라.

딸 성젠 누웠이난에 이젠

“큰년아 큰년아 무신.”

우리 할망이 골았어.

“큰년아 큰년아 무시거 험디? 저. 나 느네 어멍이여. 문 올라주라.”

허난. 문을 안 열어준 거라. 큰 큰 저 큰년이 문 안 올라주나네. 목소리가 아니렌 허멍 우리 어멍 목소린 이제 아니렌 우리 어머니 손 흔 번 내밀어 보렌 허난 손 내밀어 보렌 허난. 손 내미난 이젠 저 아니렌 까실락 까실락 까실락 아니렌 허난 또 이젠. 그 가네 지름을 불량 왔어. 그 춤지름을 그 호랑이가 춤지름 불량 완 손 영 내미난 이제 어멍카부덴 아 이젠. 보난 다른 동생은 다 잡아먹어 불곡 진 베꼈디 나간 그 저 물이 못 우에 물이 잇어난 모냥이라. 게난 그 나무에 올라간 이젠 잇이나네. 또 호랑이가 그것도 먹젠 온 거 아니. 먹젠 와네 영 보난 이젠. 그 물 연못이. 통에 확하게 빠진 거라. 그 나무에 올른 걸 몰라네. (웃음) 몰랑 빠지나네. 아니난 영 보나네 그 사람 잇이난. 아이가 잇이난 큰 아이가 잇이난. 막 이젠 어땡 올라간디 들은 거라.

“큰년아. 큰년아. 어땡 행 올라간디?”

들으난. 이제 자기가 도치로 아니 지름 불량 올라 오렌 허난 또 지름 불량 미

끌어 자빠지곡 해난 또 이젠 어떻 행 올라가난 막 해난 도치로 찍엉 나가게 현
거라. 도치로 탕탕 찍어가나네.

“하늘님아. 하늘님아. 날 살리커나네 저, 그 밧줄을 내리곡 좋은 밧줄.”

[제보자2] 밧줄을 내리곡.

[제보자1] “밧줄을 내리곡, 나 죽이커랑그네 저 썩은 밧줄을 내리라.”

현 거라. 거난 이젠 밧줄을 내리난, 올라가불곡 호랑인 그 나무에 가네 또 꺼
꾸로 말현 거라.

“날 살리커랑그네 썩은 밧줄 내리곡. 날 죽이커랑그네 새밧줄 내립센”

굴아부난 썩을 밧줄 내리난 올라가단 털어전 죽엇덴 현 말도 굴아 들어나곡.
것도 막 길어 길어. 말허민이 나가 잘 몰라네 그냥 데강만 허는 거죽.

[조사자] 그거는 제목이 뭐파?

[제보자1] 응?

[조사자] 그거는? 호랑이 그거는? 호랑이?

[제보자1] 그거는. 호랑인가? 뭘? 옛날 옛날에 허멍 들어나 부난 알아지크라?

- 핵심어 : 호랑이, 떡, 밧줄, 연못, 해님, 달님, 밧줄